

##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5월 5주~6월 1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4월 실업률 5.2%, 전월 대비 소폭 감소(GUS, 5.26)
  - 폴란드 통계청(GUS)은 4월 실업률이 5.2%로, 3월(5.3%)보다 0.1%p 하락했다고 발표함. 이는 노동부의 기존 추정치와 일치함
  - 4월 말 기준 전국 실업자 수는 약 80만 2,700명으로, 전월(약 82만 9,900명) 대비 약 2만 7,200명 감소함
  - 반면, 폴란드 기업들의 고용은 4월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해 고용시장 둔화 추세도 나타남
  -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의 기준에 따르면, 3월 폴란드 실업률은 2.7%로 EU 2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폴란드 4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7.6% 증가, 3년 만에 최고 성장률 기록 (5.26)
  - 폴란드 통계청(GUS)은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7.6%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발표함
  - 품목별로는 가구·가전제품·전자제품이 13.2% 증가했고, 식음료 및 담배류는 9.7%, 의류 및 신발은 8.4%, 의약품 및 화장품은 7.5% 증가함
  - 명목 기준으로도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6.2% 증가함
  - 도마스키(Domański) 재무장관은 “거의 모든 소비 부문에서 증가세가 관측됐으며, 폴란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고 평가함
- 폴란드, EU 코로나 회복기금 60억 유로 이상 방위산업 투자로 전환 추진(5.27)
  - 폴란드는 EU와 합의하여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60억 유로 이상을 녹색 프로젝트에서 안보 및 국방 분야로 전환하기로 결정,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승인 예정임

- 이는 유럽 내 최초로 국가재건계획(NRP) 자금을 국방안보펀드로 전환한 사례로, 민방위 인프라(대피소 등)와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dual-use 인프라(도로·철도·활주로·공항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 해당 인프라는 평시에는 민간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 군사 수송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됨
-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무인항공기(UAV)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 대의 전투 드론을 주문하고, 자국 방산 및 산업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임
- 단, EU 규정에 따라 해당 회복기금은 무기 구매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폴란드, 2025년 1~3월 무역수지 19억 유로 적자(GUS, 5.20)

- 폴란드 통계청(GUS)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폴란드는 약 19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수출은 883억 유로, 수입은 903억 유로로 집계됨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유로 기준 명목가격으로 0.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6.3% 증가해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체코, 프랑스였으며, 수입은 독일,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음

##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우, 천연가스 가격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유럽 가격도 초과(5.28)

-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1,000m<sup>3</sup>당 ₩23,000(부가세 포함)로 상승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유럽 시장 가격(\$458~~466/1,000m<sup>3</sup>, €38.15~~38.83/MWh)을 약 €2/MWh 웃도는 수준임
- 가격 급등은 국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가격 차이가 확대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가스 수입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장규제위원회는 그리스 경유 ‘Trans Balkan gas pipeline’ 의 가스 수송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 약 3백만㎥, 연간 약 10억㎥ 가스 수송 용량을 단일 공동 경매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함
- 해당 경로는 러시아산 가스 대체 및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크라이나, RISE 프로그램 통해 추가 3억 달러 지원 받을 예정(5.28)**

-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세계은행은 RISE\* 프로그램 이행 현황을 논의했으며, 작년에 체결한 593백만 달러 규모 협약 중 23,6백만 달러를 기수령

\* RISE :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계은행(WB) 산하에 설치된 기금,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국 역할을 확대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며, 대중국 견제 공급망 협력제임.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은 세계은행(WB) 내부 다자신탁기금인 EGPS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EGPS(The Extractives Global Programmatic Support)가 개도국의 광물 채굴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은 이후 단계인 가공·제조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 즉 광물 채굴(upstream)뿐 아니라 가공(midstream)이나 상품 제조(downstream) 등 공급망 모든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역할을 지원하며, 개도국의 핵심 광물 채굴을 지원해도 후속 단계인 가공 및 제조 단계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주요 7개국(G7,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와 한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관심이 큰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한국정부는 RISE에 300만달러(40억원)를 공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RISE 등 역내 및 국제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우리 핵심 산업과 관련한 공급망 안정에 노력할 방침으로 최근 기후 변화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국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EV) 부문에서 자원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램 주요 지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올해 추가로 3억 달러를 지원받을 전망
- 올렉시 소비예프 경제부 차관은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구호·복구·재건·개혁 신탁기금(URTF)\* 에서 1,000만 달러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이 곧 가동되어 중소기업 육성, 녹색 전환, 사업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URTF : Ukraine Relief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 Trust Fund

- RISE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운영, 중소기업 개발 전략 이행과 수출·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 준비도 논의됨

○ **우크라이나 유로본드, 신흥시장 증권 중 최악 실적 기록(5.27)**

- 2025년 달러 표시 우크라이나 유로본드 투자자는 10% 이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신흥시장 증권 중 최악의 성과임
- 올해 초 휴전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채권 가격이 급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
- 2024년 8월 국가 부채 구조조정 이후 일부 유로본드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현재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우크라이나 외채가 저평가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쟁 지속에 따른 가치 하락 위험을 경고
- 2035년 만기 제로쿠폰 채권은 2월 약 0.7달러에서 최근 0.5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 상황에 연동된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함

○ **우크라이나, 농업·건설업 주도로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5.21)**

- 2025년 1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은행권의 순기업 대출(Hryvnia 기준)이 전분기 대비 9.5%,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 주요 증가 분야는 농업, 도소매업, 건설업, 기계공업 등
- 소비자 대출도 같은 기간 6.7% 증가, 전년 대비로는 35.9% 급증
-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비율은 전분기 대비 1.7%p, 전년 대비 7.5%p 하락한 28.6%로 개선 추세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은행 수익성이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건전한 이익이 자본을 강화해 대출여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

○ **우크라이나, 공공부채 1,800억 달러 돌파,외채 비중 74.5%로 확대 (4월 기준)**

- 우크라이나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공공 및 국가

보증 부채는 전월 대비 5% 증가한 1,800억 달러로 집계됨. 1~4월 누적 증가율은 8.4%에 달함

- 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EU에 대한 채무 증가(131억 달러) 때문이며, 이는 유로 강세, G7 ERA 이니셔티브 자금\*, 우크라이나 재건기금(Ukraine Facility) 등으로 설명됨

\* ERA : 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 for Ukraine, G7 국가들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

- 유로화 강세(연초 대비 10% 이상)는 유로 표시 채무의 달러 환산액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G7 ERA 자금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예정으로 조건부 채무로 간주됨
- 같은 기간 국내 국채 발행은 부진했으며, 이에 따라 직접 내국 채무는 1.8%(2334억) 감소함
- 4월 말 기준 공공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음 : 74.5% 외채 / 25.5% 내채, 76.4% 외화 / 23.6% 현지통화(2), 67.7% 고정금리 / 32.3% 변동금리

###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폴란드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상 공습 강력 규탄 및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촉구(5.26)

- 폴란드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강력히 비난
- 외교부는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함
- 폴란드는 공격 발생 직후 공군을 출격시키고 방공 시스템을 경계 태세로 전환함
-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월요일 새벽, 사상 최대 규모인 355대의 드론과 9발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공습 경보가 발령됨

- 미-폴란드, ‘힘을 통한 평화’ 강조하며 방위 협력 심화 약속(5.27)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블라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세스(Pete Hegseth)와 워싱턴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헤세스 장관은 폴란드를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GDP의 5%에 달하는 국방 예산과 미 정부와 체결한 총 600억 달러 규모의 128건 군사 계약을 높이 평가함. 또한 폴란드가 미군 8,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음에 대해 감사를 포함
  - 코시니악-카미시 장관은 이번 회담을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평화 달성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EU, 폴란드 주도 방위 산업 기여 확대 위한 1,500억 유로 규모 ‘SAFE 프로그램’ 승인(5.27)
  - 유럽연합(EU)은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위 산업 강화 프로그램인 SAFE\*를 승인하며, 폴란드가 순회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성공을 거둬. 이에 대해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짐
  - \* SAFE : Security Action for Europe
  - 유럽연합 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유럽연합 담당 장관 아담 슐랍카(Adam Szałapka)는 SAFE 프로그램의 승인 소식을 발표하며, 이는 EU의 첫 번째 대규모 방위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함
  - 프로그램은 폴란드가 첫 해 동안 EU 공동 프로젝트가 아닌 자국의 방위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 폴란드 내 방위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 10년의 유예 기간과 2070년까지의 상환 기간을 포함, 민간 시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정부 측은 강조함

- 폴란드, 우크라이나-아시아 화물 수송 핵심인 '슬라프코프 유로터미널(Euroterminal S ławków)' 확장 계획 발표(5.26)
  - 폴, 투스크 총리는 10억 유로 규모의 남부에 위치한 '슬라프코프 유로터미널'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EU 유일의 광궤철도\* 화물 게이트웨이를 확대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함
  - \* 폴란드 철도궤간 : 유럽 표준궤(1,435mm) 사용, 우크라이나 궤간 : 광궤(1,520mm)를 사용, 현재 슬라프코프 터미널의 궤도는 유럽연합의 유일의 광궤 철도임
  - 이번 계획에 따라 터미널의 처리 용량은 75% 이상 증가하여 연간 50만 TEU(20피트 컨테이너 기준)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투스크 총리는 언급함
  - 폴란드 산업개발청(ARP) 위원장 Wojciech Balczun은 물류가 “비즈니스의 핵심” 이라며, 슬라프코프 터미널을 “유럽 최대의 내륙항” 으로 평가함
  - 폴란드 교통부 장관 다리우시 클림차크(Dariusz Klimczak)는 터미널 용량 확대가 폴란드가 유럽 내 화물 처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투스크 총리는 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터미널은 폴란드의 관리 하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

< Euroterminal S ławków(슬라브쿠프 유로터미널) 개요 >

□ 운영주체 및 설립

- 2010년 설립, 2004년부터 운영 중인 CZH SA 카토비체 지사를 기반으로 설립

□ 주주 구성: CZH SA, PKP Cargo SA, PKP LHS Sp. z o.o.

□ 위치 및 입지 특성

- 위치 : 폴란드 남부 슬라브쿠프 소재

○ 입지특성

- 광궤(1520mm)와 표준궤(1435mm)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유럽 내 유일의 화물 전용 터미널

## < Euroterminal Sławków(슬라브쿠프 유로터미널) 개요 - 계속>

- 범유럽 교통회랑(Pan-European Corridor) III번(동서축), VI번(남북축) 교차점 인근에 위치
- 실롱스크 광역권(Silesian Agglomeration) 외곽에 위치, 도로 및 철도 접근성 우수

### □ 철도 연결성

- 약 400km 길이의 LHS 광궤 노선으로 우크라이나 Izow/Hrubieszów 국경을 거쳐 극동 지역과 연결
- AGTC 협정선 연결 (복합운송 주요 노선):
- CE30 : Zgorzelec - Wrocław - Katowice - Kraków - Przemyśl - Medyka
- CE65 : Gdynia - Gdańsk - Warsaw - Katowice - Zebrzydowice
- 유럽-아시아 물류회랑, 범유럽 교통회랑 3번 및 6번과의 연결 용이

### □ 도로 연결성

- A1 고속도로 (바르샤바-비엘스코비아와): 8km
- A4 고속도로 (카토비체-크라쿠프): 10km
- E40 국도 (카토비체-크라쿠프): 5km

### □ 항공 접근성

- 크라쿠프 발리체 공항 : 57km
- 카토비체 피르조비체 공항 : 44km

### □ 기능 및 서비스

- 인터모달(복합운송) 운송, 화물 환적, 보안 및 선적, 특수·비규격 화물 처리
- 표준궤/광궤 열차, 트럭 간 직접 및 간접 환적 가능
- 도어 투 도어 방식의 국내외 종합 운송·포워딩 서비스 제공
- 전문 기술 인력, IT 인프라 기반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 정기 운송 구간

- 그단스크, 그디니아 등 발트해 항만과 연계
- 이탈리아 Maddaloni(나폴리 인근), 독일 Schwarzheide 터미널과 주 2회 연계 운행
-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동방향 컨테이너 정기 발송

### □ 처리 품목

- 컨테이너 화물, 팔레트 화물, 벌크 화물(건설자재, 비료, 철강 등), 철광석, 석탄 등

### □ 확장 계획(2025년 발표)

- 총 10억 유로 규모 투자, 2026~2027년 2단계 확장 예정
- 7개 신규 선로와 최신 컨테이너 처리 장비 설치
- 연간 처리 능력 285,000 TEU → 500,000 TEU 이상으로 확대

### □ 전략적 중요성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물류 허브 및 아시아-유럽 간 교역 관문으로 개발
- 발트해-지중해, 극동-유럽 간 물류 중심지로 육성 예정
- 폴란드 정부, “외국 자본의 지배 방지” 방침 명확화

○ 폴란드, CPK 신공항 터미널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 착수(5.29)

- 투스크 총리는 오랜 기간 지연됐던 CPK 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하며, 신공항 메인 터미널 건설을 위한 첫 입찰문('25.8.29 마감)을 발표
- CPK사는 올해 총 PLN 300억(약 70억 유로, 약 10조 8700억원) 규모의 입찰을 추진 중이며, 터미널 외에도 바르샤바-공항-우치를 잇는 고속철도(85번선) 건설이 포함됨
- 바라누프 지역에 건설될 신공항은 연간 3,40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하며, 모듈식 확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임
- 전체 사업비는 PLN 1,317억(약 310억 유로, 약 48조 1300억원)으로, 공항은 2026년 착공 후 2032년 개항 예정이며, 같은 해 고속철도 일부 구간도 개통될 계획임
- 수하물 시스템은 ICS\* 방식으로 8만㎡ 규모로 설치되며, Vanderlande(네덜란드), Siemens(독일), Beumer(독일) 등 유럽 3개사가 입찰에 초청됨

\* ICS : 개별캐리어시스템, Individual Carrier System

○ 폴, 에너지기업 Enea, 24억 달러 규모 전력망 현대화 대출계약 체결(5.29)

- 폴란드 전력회사 Enea는 국가재건계획(RRF) 일환으로 국영 BGK 은행과 약 91억 즈워티(약 244백만 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해당 자금은 폴란드 북서부 지역의 전력망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며, 공급 품질 향상과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전력망 용량 강화에 목적을 둠
- 야쿠브 야보로프스키(Jakub Jaworowski) 국유재산부 장관은 “전력망 개발은 기업과 소비자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이라 강조함
- 대출금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분할 집행되며, 2050년 5월까지 연 0.5% 고정금리로 반기별 상환 예정

- 석탄발전 수익성 하락 압박을 받는 가운데, 폴란드 3대 전력회사인 Enea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싱크탱크 Forum Energi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폴란드 전력 생산의 약 57%가 석탄에 기반하고 있음

○ **ORLEN 그룹, 폴란드 최초 해상풍력단지 건설 본격화(5.28)**

- ORLEN 그룹은 폴란드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소인 Baltic Power 건설을 위해 Łeba에 운영 및 서비스 기지를 구축 및 가동을 시작
- Baltic Power 발전소는 2026년 가동 예정이며, 15MW급 대형 터빈을 세계 최초로 설치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임. 연간 약 4,000GWh의 청정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2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함
- ORLEN CEO Ireneusz Fafara는 본 사업이 폴란드 에너지 관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약 3,800억 PLN, 약 139조원)의 일환임을 강조함

○ **폴란드, 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 위한 해외 파트너 선정 절차 6월 개시 예정(5.28)**

- 폴란드 정부는 제2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6월부터 해외 파트너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당초 1월로 예정되었던 일정에서 연기된 것임
- 보이치에흐 브로흐나(Wojciech Wrochna) 산업부 차관은 기술, 시공사, 자금조달, 운영방식 등 다양한 조건을 협상하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프랑스, 미국, 캐나다 기업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 설명함
- 폴란드는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첫 원전 부지로 발트해 연안을 선정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시공 파트너로 채택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제2 원전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및 파트너 물색에 착수한 단계임
- 브로흐나 차관은 “우리는 자본을 투자할 파트너를 원하지만, 실

제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며, 관련 협의는 내년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Grupa Azoty, 부사장을 해임하고 후임은 사장으로 임명 예정(5.23)**

- Grupa Azoty S.A.는 2025년 5월 23일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크시슈토프 코워지에이치크(Krzysztof Kołodziejczyk)를 해임했다고 발표
- 해당 결의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해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 현재 Grupa Azoty의 이사회 구성원은 안제이 스킨모프스키(Andrzej Skolmowski) 사장 대행, 파베우 비엘스키(Paweł Bielski) 부사장, 안제이 다비도프스키(Andrzej Dawidowski) 부사장, 후베르트 카몰라(Hubert Kamola) 부사장, 아르투르 바비치(Artur Babicz) 이사로 구성
- 부사장 해임 직후, Grupa Azoty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충원을 위한 자격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 이 심사는 제13기 이사회 임원 1명을 선발하여 사장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진행됨

○ **폴 국영 화학 기업 Grupa Azoty,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5.23)**

- Grupa Azoty는 2025년 1분기에 연결 기준 순손실 3억 2,500만 즈워티, EBITDA 손실 800만 즈워티를 기록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수치임(전년 동기의 순손실 333백만 즈워티, EBITDA 손실 50백만 즈워티)
-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38억 2,200만 즈워티를 기록했으며, 농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EBITDA 수익성을 달성함
- 높은 가스 가격과 동유럽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사는 경영 효율성 개선 및 사업 모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주요부문별 실적  
(화학 부문) 판매량 감소, 제품 가격 상승,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

하락과 동시에 가스 가격 상승이 나타남.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부재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이 부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음. 유황 시장은 정유 제품 공급 감소와 글로벌 수요 증가, 관세 도입 우려가 특징임. OXO 알코올 및 가소제 시장은 제품 가용성이 높고 수요가 낮았음. 이산화티타늄 시장 역시 수요 개선을 기다리고 있음. 대부분의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기술용 요소와 유황의 상승폭이 컸음. 가소제 가격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음.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지만, 가스 가격 상승이 부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화학 부문의 EBITDA 마진은 -10.2%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7%p 개선되었음

(농업부문) 생산 및 판매량의 상당한 증가, 제품 가격의 소폭 상승, 천연가스 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음.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비료의 지속적인 대규모 수입이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EU 생산자들의 상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Grupa Azoty의 시장 보호 노력이 이러한 확산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판매 활동 강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질소 비료는 22%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 농업 부문의 EBITDA 마진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2.4%p 상승했음

####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EU, 6월 6일부터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무역 중단 및 수입 제한 재도입 예정(5.23)
  - EU는 2022년부터 적용해온 광범위한 우크라이나산 제품 무관세 조치를 중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대해 일시적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
  - 제한 대상 품목은 닭고기, 설탕, 곡물 등 민감한 농산물로, 2025년 말까지 수입 물량에 상한선을 두어 EU 내 농업계의 긴장 완화를 도모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 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과정으로, 전시 무역 자유화 조치를 중단하고 2016년 체결된 EU-우크라이나 포괄적무역협정(DCFTA) 기반으로 무역 조건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짐
-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DCFTA 중심의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폴란드 부총리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슈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통제되지 않은 유입(uncotrolled influx)”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하며 폴란드가 해당 조치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함

○ 영국,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 30억불을 우크라 지원에 배정(5.28)

-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초과 수익 활용을 위한 ERA 사업 협약\*을 체결, 2025~2026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ERA : 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

- 지원금은 해외 방위 제품 구매, 군사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우크라이나 및 국제 방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기타 중요 물자(우크라이나산 포함) 조달에 사용됨
- 이 재원은 특히 군사 장비 수리·유지보수와 공동 방산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될 계획임
- 전략산업 부차관 데이비드 알로얀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생산능력이 350억 달러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이 방산 생산 및 수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비니차에 최대 60억 흐리우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예정(5.23)

- 비니차에 17만5천㎡(17.5ha) 규모의 ‘포맷시아-비니차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50개 기업 입주와 약 3,500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개발사 알테라 그룹이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

※ 비니차 17.5ha, M10 산단 23.5ha

- 교육, 기업, 정부, 사회 조직을 연계하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을

적용해 혁신과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혁신센터, 프로토타입 실험실, 연구개발(R&D) 센터, 창업 인큐베이터 등도 구축 예정임

\*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Quadruple Helix Model)은 혁신 생태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기존의 트리플 헬릭스 모델 (Triple Helix Model), 즉 정부(Government), 산업(Industry), 대학(University) 간의 상호작용에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네 번째 요소로 추가한 개념임

- 단지 내 아파트 호텔, 식당, 체육관, 슈퍼마켓, 스포츠 시설, 고객 센터, 대피소 등이 포함됨
- 도로 및 하수도 공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며, 기타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 중임. 주로 농산물 가공,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중점 두고 있으며, 기타 관련 사업도 수용함. 전체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임

#### ○ 미-우크라, 재건 투자 기금 공식 출범,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5.26)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5월 23일 공식적으로 ‘미-우크라 재건 투자 기금(American-Ukrainian Investment Fund for Reconstruction)’을 출범시킴. 양국 정부는 일련의 양해각서 교환과 두 건의 상업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함
- 윌리야 경제부 장관은 해당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반영하며 공동 관리 체계를 채택했다고 밝힘
- 기금은 천연자원 채굴, 석유·가스, 항만, 인프라 등 핵심 분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예: DFC) 간 연결을 촉진할 예정임
- 아울러 우크라이나 내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국 주요 광물 목록을 개정, 천연 수소 자원을 새롭게 포함함(청정에너지 자원) 타이트 가스(에너지 핵심 자원), 세슘 광석(전자·국방산업 전략 자원)
- 《The Times》는 이번 협력의 성공 여부가 ① 미국의 선제 투자, ② 우크라이나의 전쟁 생존, ③ 기업 활동의 안전 보장(러시아 미사일 위협) 등 세 가지 핵심 요인에 달려 있다고 분석함

- EU,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 15달러 추가 인하 제안, 미국은 제안 저지(5.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주요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과 비회원국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현행 60달러에서 45달러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18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포함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회원국 및 G7 파트너국이 해당 조치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가격 상한선 인하 조항의 최종 성명 포함을 저지함
  - G7 최종 공동성명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압박 강화를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함
  - 헝가리와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원유 가격 상한선 인하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제재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 □ 주요 프로젝트 동향

###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 사업 개요 >

- (발주처) 해외건설협회, KIND, 태웅로직스
- (용역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지평
- (용역비) 730백만원
- (용역기간) 2025.2.~2025.7(150일)
- (주요내용) M10 산단 사업 투자를 위한 재무 및 법률 등 타당성 분석
- (추진현황) '25.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25. 3월 현지 착수보고  
'25. 6월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5. 7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 완료('25.2), 현지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완료('25.3), 자료 수취 지연 등으로 용역 연장 협의중

####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11월 최종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급

- (주요동향)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

####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

#####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베올리아, KIND, 남부발전
- (사 업 비) USD 480백만
- (사업내용) 폐기물 연20만톤 처리, 전기 18.6MWe 및 열 57 MWt생산
- (추진현황) '25.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25.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25. 5월 Non-binding Offer 제출 완료(남부발전)  
'25.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  
'25. 3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

- (주요동향)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li> <li>•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li> </ul>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착수보고('24.2월)</li> <li>• 1단계 중간보고('24.9월)</li> <li>• 2단계 중간보고('24.10월)</li> <li>• 초청연수 실시('24.10월)</li> <li>• 현지 최종보고('25.4월)</li> <li>• 국내 최종보고('25.5월)</li> </ul>
우만 스마트 시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li> </ul>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li> <li>•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li> </ul>
보리스 공 현대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li> </ul>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li> <li>•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li> <li>•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24.12월)</li> </ul>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li> </ul>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 上)</li> <li>* 환경부 F/S 지원사업</li> </ul>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li> <li>•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li> </ul>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5.10월)</li> </ul>
철도 노선 고속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li> <li>*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li> </ul>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외교부 ODA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li> </ul>